**1. 기아와 지원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본인의 경험 및 보유 역량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십시오.(700자)**

전기차가 태동기를 지나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의 초기 우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아는 EV3를 통해 '가성비 높은 전기차'라는 명확한 포지셔닝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BYD를 포함한 강력한 경쟁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가격과 스펙 모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기아는 뛰어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 기아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 역량을 갖춰왔습니다.

이 직무의 핵심은 품질 확보입니다. 저는 KIST에서 태양전지 전극 공정 연구를 수행하며, 품질 유지를 위한 습관과 문제 대응 능력을 길렀습니다. 태양전지는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제조되기에 육안으로는 품질 이슈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공정 단계별 소요 시간, 온도, 장비 설정 값, 발생 이슈 등을 세세히 기록하는 공정 관리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 발생 시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역추적하고, 개선책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문제 분석력을 통해 난제를 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연구 중 전극 간 접촉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학계에서도 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실험 데이터를 다변수 분석하며 숨겨진 상관관계를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수립해 검증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특허의 메인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현재 출원 중이며, 책임연구원님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력은 불량의 원인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공정 내 효율 저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개선하는 데에도 유효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석 기반의 접근을 통해 기아의 생산성과 품질을 함께 향상시키며, 나아가 SDF 구축에 기여하여 기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DF: software developed factory (스마트 팩토리)

**2.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700자)**

생산기술 업무의 핵심은 공정 효율화입니다. 저는 기존 공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도전했고, 그 결과 공정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데이터의 신뢰도까지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KIST에서 태양전지 전극 공정 실험을 수행하던 당시, 전극의 평균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전극 3지점의 높이를 측정하고, 그래프를 가공해 이미지로 저장한 후, 이를 다시 좌표화해 엑셀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실험당 75회 반복해야 해 반나절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3지점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도 낮았습니다.

비효율적인 과정을 보며 저는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고, ‘단순화와 정확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장비 가이드를 꼼꼼히 읽으며 활용되지 않던 추가 측정 변수를 발견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 변환과 좌표 추출 없이도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식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험 노트를 뒤져가며 변수 간 관계를 조합해보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했고, 직관적이지 않은 수치 간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매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신뢰도 높은 계산식을 정리해내자, 전체 측정 프로세스는 기존의 5단계에서 단 2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전체 측정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었고, 확보된 시간으로 측정 지점을 늘려 데이터의 정밀도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결국 연구실의 새로운 표준 공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실험 개선이 아니라, 기존 방식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기아에서도 생산 현장의 비효율을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3. 기아의 가치와 행동(채용홈페이지 내 Life at Kia 페이지 참고)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관련된 본인의 경험/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기아의 가치와 행동 : 사람을 생각합니다 / 함께, 더 멀리 나아갑니다 / 서로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 /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추구합니다)(600자)**

[사람을 생각합니다: 비어 있기에 뭐든 그릴 수 있는 캔버스]

“정해진 것은 없다.”  
이 한마디는 지금의 저를 만든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철학,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절대적 기준이라 여겼던 세계관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니체 철학은 기존의 가치 체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려는 태도로, 저에게 ‘기성의 틀을 의심하고, 스스로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저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나와 다른 관점과 삶의 방식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써야할 것이 정해진 정답지가 아닌, 비어 있기에 뭐든 그릴 수 있는 캔버스처럼, 저 또한 ‘정해지지 않음’에서 출발해 다양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포용력은 실제 경험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고객의 다채로운 요구에 유연하게 응대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어회화 동아리 조장으로서 30여 명의 내·외국인을 이끌며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 속에서도 조화를 이뤄가는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고방식이나 편견들이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절감했고, 이를 내려놓고 열린 자세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아의 생산운영 및 공정기술 직무는 다양한 협업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의 공정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 가치관인 '정해진 것은 없다'를 바탕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성과 논리의 대화를 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